

제38회 한일 · 일한경제인회의의 폐막



우리협회는 (사)일한경제협회와 공동으로 제38회 한일경제인회의를 2006. 5. 25 ~ 27 일본의 삿포로시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역대 최고인 283명이 참석, 한일양국 경제협력방안에 대한 정보교환은 물론 인적

네트워크 형성과 민간외교활동을 통한 한일관계 개선,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홍보 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한일양국 경제협력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는데 본 회의가 1969년 이래 한 번도 거르지 않고 계속 개최되어 온 대표적인 양국간 민간경제협의체로서 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해 오고 있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최근 양국 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가운데 본 회의가 개최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피력하였습니다.

한편 양국 경제인들은 공동 선언문을 통해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재개를 요구했으며, 중소기업으로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본 회의에 한국측에서는 **조석래(趙錫來)** 단장 등 133명, 일본측에서는 **세토 유조(瀬戸 雄三)** 단장 등 150명(삿포로(札幌)시의 기업가 18명 포함)이 참가하여 『21세기 메가트랜드의 변화와 한일역할』이라는 주제 하에 한일FTA 체결과 21세기의 한일관계, 한일양국 공동과제와 협력방안, 상호이해 증진 및 문화·인적교류 방안 등에 대한 폭 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본 소식지에 그 중 한국측 기조연설문(발표자 : 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을 게재합니다.(7페이지) 자세한 내용은 별도 보고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개회사하는 조석래 단장>



차기회의는 내년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한일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 희망테마 등이 있으시면 수시로 우리협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화보 ☜



고이즈미 총리를 예방한 한국측 단장단



삿포로 시내 환영배너



삿포로공항에서의 양측 단장 영접모습



일본측 단장단을 접견하고 있는 정세균 산자부 장관



양측 단장의 개회식 진행모습



양측 공동주최 리셉션



건배 제창



1분과회 진행하는 설원봉 부단장



분과회 전경



2분과회 진행하는 김희용 부단장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화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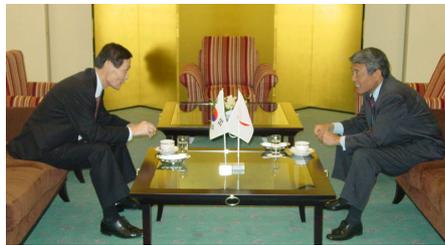
공동성명(안) 심의하는 양측 단장단



전체회의 진행하는 유상부 부단장



공동성명 채택



한일산업무역회의 양측 চে어맨 회동



양측 단장 기자회견 모습



매스컴 포토타임



부인 프로그램



홋카이도 지사공관을 방문한 양측 부인들



한국측 단원 만찬회 - 삿포로비루엔



음선 프로그램 - 체험공방(일본전통 염색)하는 김상하 명예회장



제75차 한국방일수출촉진단 참가기업 모집

~ Security Solution 2006 <네트워크 종합시큐리티 비즈니스이벤트> ~
정보 누설, 내·외부의 네트워크 공격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지킨다!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일본시장으로의 진출 지원을 통한 대일 수출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한국방일수출촉진단이 오는 10월 18일에 도쿄로 파견됩니다. 최첨단 보안장비와 각종 최신 정보보호 솔루션을 직접 체험해 보시고, 일본 바이어와의 만남을 통해 1:1 비즈니스 상담을 할 수 있는 금번 수출상담회에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동 수출촉진단은 1985년부터 일본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와 공동 협력사업으로 시작하여, 지금까지 총74회에 걸쳐 일본시장 개척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신규바이어 발굴을 통한 일본시장 진출 및 수출확대 등에 크게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 기 간 : 2006년 10월 18일(수) ~ 10월 21일(토)
 - 장 소 : 일본 도쿄 빅사이트(東전시홀)
 - 주 최 : (사)한일경제협회, JETRO(일본무역진흥기구)
 - 후 원 : 산업자원부,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모집분야 :
 - 보안장비/시스템 : 화상감시 시스템, 출입통제 시스템, 홍시큐리티, 생체 인식 시스템 등
 - 정보보호 솔루션 : 인증 및 암호 솔루션,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PC보안 솔루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 생체인식 솔루션, 콘텐츠 보안 등
 - 활동내용 :
 - 사전 어포인트에 의한 바이어와의 1:1 개별 상담회
 - 『Security Solution 2006』 전시회 참관 및 개별 상담, 시장조사
 - 지원사항 :
 - 국제 왕복항공료(김포↔도쿄, 1사 1명)
 - 현지 홍보 및 바이어유치 상담알선
 - 상담장 임차 및 필요 기자재 제공
 - 통역(일본어) 지원 및 홍보용 브로슈어 제작·배포
- * 문의처 : 한일경제협회 김정호 차장 Tel : 02-3014-9866, E-mail : jhkim@kjc.or.kr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사)일한경제협회 제7대 회장 취임

우리협회의 일본측 파트너인 (사)일한경제협회는 6월 13일 총회를 개최하여 세토 유조(瀬戸 雄三) 제6대 회장의 뒤를 이어 이이지마 히데타네(飯島 英胤) (주)도레이 특별고문을 제7대 회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또한 타케자와 타이(武澤 泰) (주)도레이경영연구소 특별참여를 신임 전무이사 겸 사무국장으로, 아끼야마 스스무(秋山 迪) 협회 사무국장을 상무이사 겸 조사부장으로 내정하였습니다.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 개최

~ 2006년 7월 11일(화)~14일(금) 일본 사가현에서 ~

일본 큐슈(九州 7縣 2政令市 : 후쿠오카·사가·나가사키·구마모토·오오이타·미야자키·가고시마 현, 후쿠오카·키타큐슈시)지역과의 파트너십 구축 및 지역 간 교류 촉진을 통해 무역·투자·산업 기술협력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13회 한·일(큐슈)경제교류회의가 오는 7월 11일(화)~14일(금)까지 일본 사가현에서 개최됩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무역, 투자, 산업기술협력의 촉진을 위한 5가지 기본 의제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한일 간의 비즈니스 교류에 초점을 두고 일본 큐슈지역과의 디지털 콘텐츠/IT분야의 제휴를 확대해 나아가자 「디지털 콘텐츠/IT분야에 있어서의 한·일(큐슈)제휴 가능성」을 테마로 세미나 및 비즈니스 교류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 기 간 : 2006년 7월 11일(화) ~ 7월 14일(금)
- 장 소 : 일본 사가현 (호텔 뉴오타니 사가)
- 참가자 : 한일 양국 기업, 관계기관 등 140여명
- 주 최 : 산업자원부, 한일경제협회, 일본 경제산업성(큐슈경제산업국)
九州·韓國경제교류회의운영위원회, 일한산업기술협력재단,九州경제국제화추진기구
- 프로그램

<한·일(큐슈)디지털 콘텐츠 / IT 비즈니스포럼 >

I. 세미나 세션

- ◆ 冒頭 인사 (九州經濟産業局 國際部長)

- ◆ 기념강연

(九州側) 湖川 友謙 (애니메이션감독, 作家)
「日本の 콘텐츠 제작의 실제와 가능성」 【30분】

- ◆ 특별강연

(九州側) (株)C & R 総研 取締役所長 清田 智
「아시아의 할리우드 구상에 대해」 【30분】

(한국측) SK텔레콤 콘텐츠기획팀 과장 백은수
「한국 디지털 콘텐츠 시장동향과 SK텔레콤의 디지털 콘텐츠사업 전략」 【30분】

- ◆ 「한국의 투자환경에 대해」 【15분】

II. 비즈니스교류 세션

- ◆ 비즈니스교류회 「디지털 콘텐츠 / IT분야의 한·일(큐슈) 제휴 가능성」

< 프레젠테이션 > 【70분】 10분×6개사
(Moderator) (有)아시아비즈니스컨설턴트 代表取締役 古森 政基
(Presenter) 東風(株), (株)드림뱅크, (有)란텍소프트웨어(KLIC 회장),
CIC Life(주), (주)COMMUCITY, You can buy the world(주)

- ◆ 특별강연

(九州側) (株)USEN 代表取締役社長 宇野 康秀
「USEN의 콘텐츠 비즈니스와 향후의 사업전략에 대해」 【30분】

- ◆ 명함 교환회 【35분】 * 순차통역 준비

제7회 한일고교생교류 캠프 개최

우리 협회는 (사)일한경제협회와 한일 관계의 차세대를 짚어질 청소년의 교류 확대를 추진하고자 2004년 1월을 시작으로 「한일고교생교류 캠프(경제경영체험캠프)」를 개최(금년 2월까지 6회 600명의 양국 고교생 간 교류)해 오고 있으며, 오는 8월 4일(금)~8월 8일(화)까지 4박 5일간 서울에서 양국 고교생 약 100명이 참가하여 제7회 고교생교류 캠프를 개최합니다. 캠프에서는 양국 참가자를 10명 전후의 혼성 팀으로 나누어 양국의 관광·문화를 판매하는 비즈니스 기획을 각 팀별로 작성하여 발표하게 되며, 합숙형식의 캠프 공동 작업을 통해 양국 고교생의 보다 밀도 있는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 본 프로그램의 목적입니다. 차세대의 한일경제를 짚어질 젊은 이들의 풀뿌리 교류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캠프의 목적·취지

- 국경을 넘어 동년배의 젊은 세대 간의 진정한 우정을 키운다.
- 공동 작업을 통하여 서로의 차이와 공통점을 스스로의 감각으로 인식한다.
- 서로의 '좋은 점'을 하나라도 더 많이 찾아내어 사물을 다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배운다.
-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구축의 기초로서 새로운 차세대를 짚어질 젊은 세대의 풀뿌리 차원의 교류를 촉진한다.

□ 일시 및 장소 : 2006년 8월 4일(금) ~ 8일(화) (4박 5일), 라마다서울호텔

□ 인원 : 한국학생 50명, 일본학생 50명

□ 주최 및 후원 : (사)한일경제협회, (사)일한경제협회, 일본외무성, 일본국토교통성, 주일한국대사관

□ 협찬 : 아사히비루(주), 도레이(주), 일본삼성(주), 롯데면세점, 롯데제과(주)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 개최

~ 2006년 10월 18일(수)~21일(토) 일본 후쿠이현에서 ~

우리나라의 동해안 4개 자치단체(대구, 울산, 강원, 경북)와 일본 호쿠리쿠(北陸 : 新潟, 富山, 石川, 福井縣)지역과의 무역·투자·기술협력 확대 등 지역 간 경제발전과 교류촉진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양국 정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기업 등 관계자 15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양국 간 경제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제7회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가 오는 10월 18일(수)~21일(토) 일본 후쿠이현에서 개최됩니다. 「한·일(호쿠리쿠)경제교류회의」는 금년이 제7회 째로 본 회의에서는 환동해권 8개 자치단체간의 파트너십 구축, 산업·기술교류, 공동조사연구 등 지역 간 교류 촉진을 위한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으며, 경제교류회의와 병행하여 호쿠리쿠 기술교류 테크노페어 부스 출품과 일본 호쿠리쿠 지역 기업인과의 비즈니스 상담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양국 기업인 간 제휴 및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관심 있는 기업 여러분의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 기 간 : 2006년 10월 18일(수) ~ 10월 21일(토)

□ 장 소 : 일본 후쿠이현 산업회관

□ 주 최 : 산업자원부, 일본 경제산업성(추부경제산업국)

□ 주 관 : 한일경제협회, 北陸經濟連合會·北陸AJEC

□ 한국기업 대상 업종 : 일본 호쿠리쿠 지역 참가 기업과의 상담을 희망하는 기업

* 北陸技術交流테크노페어(<http://www.technofair.jp>)전시회에 직접 출품하지 않는 기업도 참가 가능

☞ 제38회 한일·일한경제인회의 한국측 기조연설 ☜

東아시아의 協力強化를 위한 韓日이니셔티브

한일 양국간 협력관계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두 나라가 함께 하며 나아갈 방향과 향후 동북아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공동번영을 위한 두 나라의 역할에 대해서.....



한일협력의 현황

금년은 한일 국교정상화 41주년이 되는 해로 그동안 두 나라 사이의 교류협력 관계는 크게 발전되어 왔다. (양국간 교역액 : 1965년에 2억 달러 → 2005년에는 724억 달러)

한국에게 있어서 일본은 제 1위의 수입국이자 중국, 미국에 이은 3위의 수출국이며 소재, 부품, 설비를 제공해 주는 가장 큰 공급원이다. 서로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두 나라 사이에 자연스러운 분업구조가 형성되기도 했다.

교역뿐만 아니라 일본기업의 對韓 투자와 기술협력 역시 양국이 상호보완적 경제발전을 이루는데 큰 도움을 주었으며, 인적·문화적 교류도 한층 활발해지고 있고, 이러한 인적교류는 금년 3월 일본의 입국비자면제 조치로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한국인의 일본 방문자수 : 2002년 117만명 → 2005년 175만명, 일본인의 한국 방문자수 : 연간 240여만명)

양국간의 우호협력 관계가 간밀하게 유지되어 온 것은 두 나라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와 경제제도가 유사하고 유교적 가치관을 공유하는 등 공통점이 많기 때문이다.

한일협력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진로

한일 두나라 사이의 협력관계가 지난 40여년간 급속히 확대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나타나고 있다.

① 매년 큰 폭으로 확대 되고 있는 한국의 대일무역적자

(적자규모 : 1998년 46억 달러 → 2000년 114억 달러 → 2005년 244억 달러)

한국이 수출상품 제조에 필요한 부품과 설비의 수입을 일본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역조현상은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대일무역 적자가 구조적인 문제라 하더라도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대일본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일본측의 관세율 인하와 일본의 높은 비관세 장벽이 완화되어야 한다.

일본의 평균 관세율은 2%대로 한국의 7%대에 비해 낮은 편이다. 그러나 한국의 관세율이 모든 품목에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는 반면 일본은 한국의 수출품목 중 대일경쟁력이 비교적 높은 섬유, 의류 등의 분야에서 3~6%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관세보다 더 큰 진입장벽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 장벽이다. 정부의 엄격한 수입규제, 까다로운 검역·위생기준, 국제표준인 ISO 인증과는 별도의 일본 국내인증 취득, 그리고 유무형의 유통장벽 등이 한국 상품의 일본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② 양국간 기술이전의 감소추세

1990년대에 연간 6~7억 달러에 달하던 일본으로부터의 기술도입 액수가 2001년 이후 4억달러 수준으로 줄어 한국의 전체 기술도입액수의 14%에 불과하다.

일본의 對韓 기술이전 및 공여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에게 손해가 된다는 생각이 바뀌어져야 한다. 과거 40여 년간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앞선 기술과 노하우를 도입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한 반면 일본도 그 대가로 안정적인 부품·설비 수출시장을 확보할 수 있었다. 기술은 물과 같아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마련이다. 물론 창의성과 개발비 등은 보상받아야 하고 지적재산권도 존중되어야 하지만, 기술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지나치게 경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일본의 對韓투자 축소 경향

일본기업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2000년의 615건, 24억 달러를 정점으로 매년 줄어들고 있다. 지난 2년간 투자규모가 다소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외국인의 對韓 투자금액 총액의 15% 내외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의 대한투자 비중 : 70년대 62% → 80년대 46%)

일본기업들의 對韓투자가 부진한 이유로 한국의 투자여건을 들고 있으나,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정부는 행정규제의 철폐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노사관계도 최근 들어 안정되어가는 추세이다. 또한 투자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한국경제를 바라보는 일본의 시각이다. 지난 '97년 외환위기 당시 한국에서는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있었고 이 과정에서 외국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많았다. 歐美기업들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과감한 투자가 있었으나, 일본기업들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이를 놓치고 말았다. 상당한 리스크가 따랐는데도 불구하고 歐美기업들이 과감한 투자를 한 것은 한국경제의 力動性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경제가 회복된 후 상당한 이익을 향유할 수 있었다.

④ 상호협력의 체제 변화 [수직적 분업구조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양국의 대표적 기업인 삼성과 소니가 함께 설립한 LCD 생산회사인 S-LCD사의 성공은 한일 협력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상징적 사례라고 하겠다. 두 회사는 공동투자로 막대한 투자부담을 덜고 국제표준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을 뿐만 아니라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세계 LCD-TV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높일 수 있었다. 이처럼 두 나라 기업간의 수평적 합작, 기술협력, 공동연구개발, 부품의 상호공급 등 전략적 제휴는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양국간 불균형 문제도 해소하는 바람직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한일FTA와 동아시아 협력체제의 구축

오늘날 세계 각국은 WTO로 대표되는 다자주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역협력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EU, NAFTA, ASEAN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금년 3월 현재 총 193건의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 발효 중에 있으며 전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이러한 협정을 체결할 정도로 지역주의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 지역협력체제의 구축을 통해 회원국들은 더 넓어진 시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원, 기술, 그리고 생산의 이점을 상호보완적으로 활용하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등의 혜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통합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해소되어 역내의 안정과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조류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국가간 또는 지역간 협력체제의 구축이 활발해지고 있다.

중국이 2005년 7월 ASEAN 10개국과 FTA를 발족시켰고 일본은 2002년 11월 싱가포르의 FTA를 체결한데 이어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등과 양자간 FTA를 합의하였다. 한국의 경우에도 금년 3월 싱가포르의 FTA가 발효되었으며 며칠 전인 5월 16일에는 태국을 제외한 ASEAN 9개국과 상품분야의 FTA에 최종적으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오랫동안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자랑해 온 그리고 최인접국인 한일간의 FTA 협상은 지난 98년 처음 논의가 시작된 후 2004년 11월 6차 협상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한국측이 농수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정부조달시장 참여 문제 등에 관심을 갖고 있

는데 반해 일본측은 관세철폐,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등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두 나라 모두 국내적으로 다양한 이해집단간의 갈등을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FTA는 세계적 추세이므로 결국 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앞으로 한일 두 나라는 양국간의 FTA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이를 교두보로 한중일 3국간 나아가 ASEAN 역내국까지 함께 참여하는 동아시아 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한중일 3국과 ASEAN을 포함한 동아시아는 세계인구의 32%, GDP의 19%,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협력한다면 동아시아지역은 EU, NAFTA에 대항하여 세계경제를 이끌어 갈 중심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적 중요성과 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아직 동아시아는 물론 동북아 3국간 공동체 구성을 위한 구체적 구상이나 실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론 경제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원인이기는 하지만 이 지역에서 비중이 높은 한중일 3국간의 정치, 안보, 외교적 갈등과 일본과 중국간의 경쟁심리가 동북아는 물론 동아시아 전체의 협력체제 구축을 어렵게 하고 있다. 동북아 FTA는 3국 공동으로 체결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으므로 먼저 한일FTA와 한중FTA를 체결하고 이를 토대로 3국간 경제협력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단계적 접근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일FTA가 동북아 3국간 FTA로 또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로 이행되는 장기구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한일 양국이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한일 양국은 중국에 비해 세계 교역의 경험이 좀 더 길고 또 오랜 시장경제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 보다 大乘의 인 건지에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세계 제 2의 경제대국이자 동아시아 경제의 선두주자인 일본의 책임과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국이 ASEAN과의 FTA 타결 과정에서 이른바 Early Harvest 정책을 통해 목표 년도인 2010년보다 5년이나 앞당겨 농수산물을 포함한 400여개 품목의 관세를 조기에 인하한 것은 많은 점을 시사해 준다. 일본은 전통적으로 미국과의 긴밀한 우호협력 관계를 중시하면서 한국,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국가와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그러나 이제 일본은 동북아를 비롯한 아시아쪽에 시선을 돌리고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한중일 FTA협상에서 일본과 중국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동아시아 공동체 형성 과정에서도 역내 선진국과 후진국간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중재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을 것이다.

협력강화를 위한 민간의 역할

한일 양국간 협력관계 증진을 위해서는 두 나라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중요하다. 그러나 교역, 투자, 기술협력의 현장에서 뛰고 있는 기업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한다. 특히 시장경제가 발달한 양국에서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기업들이 앞장서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찾는 것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양국 정부는 기업들이 더욱 활발하게 교류협력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기업은 정부의 정책이 원활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두 나라 정부 사이의 대화채널이 원활치 못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비즈니스 포럼을 다시 가동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포럼을 통해 다양한 협력사업이나 공동 프로젝트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양국의 기업인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업종별 연구회도 열어 분야별 협력의제를 발굴하고 공존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다. 경제는 이념과 정치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EU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오랜 반목과 증오의 역사를 극복해 낸 독일과 프랑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한일관계도 불행했던 과거사와 정치, 사회적 갈등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지만 민간 경제교류는 이와는 별개로 지속되어야 하고 또 꾸준히 확대되어야 한다.

금번 회의가 한일간 협력 강화를 통한 동아시아의 협력체제 구축에 양국 경제계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며, 한일 두 나라의 협력을 바탕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

日本은 지금...

엔高와 제로金利 政策

<現在,日本 經濟의 兩面>

석유와 생선 식품을 제외하면 일본의 소비자 물가의 상승률은 아직 제로(0)에 가깝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는 명암 양면을 갖고 있다.

밝은 면은 첫번째는 기업 이익률이 버블기를 능가할 정도로 높다. 두번째는 실업률은 4%로 낮고 노동력 부족을 보고하는 기업수가 잉여노동력을 갖고 있는 기업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황기에 접어들면 통상 가장 걱정되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의 상승이다. 현재의 미국 경제가 그렇다. 好景氣를 유지하면서 2% 이상의 인플레이를 방지한다고 하는 양다리 걸치기의 정책은 컨트롤이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연방준비이사회의 버넌 新議長은 5월 초에 현재 5%의 정책 금리를 이보다 더 인상할 필요는 당분간 없음을 언급했다. 그러나 그 다음 주에 발표되어진 지표는 미국의 코어인플레이가 예상 이상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 때문에 시장에는 역시 금융 긴축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고 세계의 주가는 크게 하락해 버렸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好況期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석유, 식품을 제외한 인플레이는 제로에 가깝다. 단위 생산물당 노동 코스트는 아직도 저하하고 있다. 즉 인플레이 문제가 전혀 없는 호황기, 이 조합이야말로 현재의 일본경제의 가장 밝은 면이다.

하지만 어두운 면이 있다. 엔高에 의한 디플레이 재연 가능성이다. 미국 경상수지 적자가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거의 7%에 달하고 1985년의 플라자 합의 당시의 3.5%의 2배나 되고 있다.

이 팽창한 대외적자의 축소를 위해 미국이 재정적자 삭감 등을 진행하지 않으면 돌연 달러 약세가 발생하여 인플레이 가속이 미국 금리의 급등을 초래하고 세계의 자산 시장을 어지럽힐지 모른다. 최근 2~3주간에 발생하고 있는 미국의 금리 예상과 주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달러 폭락 하에서는 인플레이와 미국의 금리상승 예상이 세계의 주식 시장을 더욱 대규모로 동요시킬 것이다.

달러 하락이란 곧 엔高이다. 그 때 일본의 코어인플레이가 아직 2%를 하회하고 있다고 하면 일본경제는 또 다시 디플레이의 수렁에 빠진다. 그 엔高가 현재의 好況 뒤에 오는 불황과 겹쳐지면 디플레이 재연은 불가피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현재의 금융 정책은 엔高와 불황의 동시 到來에 대비해서 현재의 好況을 가능한 장기화하여 인플레이가 2%가 될 때까지는 계속하여 제로 금리정책에 가까운 정책을 이어 나가야 한다.

<자료출처 : 일본경제신문 2006. 6>



部下 育成

内川 普 東自動車工業 會長

<部下에 미움을 사고 싶지 않다>. 이러한 의식이 최근 관리직 사이에 퍼지고 있는 듯하다. 토요타자동차에 籍을 두고 있던 시절인 74년부터 3년간은 生産調査室의 스태프로서 충분히 단련 받았다. 개설된지 수년밖에 지나지 않았던 이 부서는 당시 전무였던 大野耐一씨의 지휘하에 <토요타 生産方式>을 만들어 내고 있던 가장 바쁜 때였다. 아직 확실한 것이 없어 暗中摸索의 상태가 이어지고 있었다.

大野씨는 <上司는 어느 정도 部下를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닳도록 말했다. 또한 <정말로 좋은 일을 하려고 생각한다면 部下에 미움을 당할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 그 정도로 현장에서는 실제로 매일 매일 어려움의 연속이었다.

토요타 생산방식이 어째서 지금까지 堅固한 것이 된 것인가? 그것은 부하가 항상 문제에 부딪혀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 같은 시스템이 견고하게 내장되어져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방식은 고객이 구입하는 속도로 차를 만드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를 들면, 발매 직후는 잘 팔리기 때문에 5명으로 생산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판매가 줄어들게 되면 생산 라인의 스피드를 떨어뜨린다. 그렇게 되면 4.1명으로도 거기에 맞게 생산할 수 있게 된다.

그대로 5명으로 일을 하면 0.9명분이 쓸모 없게 낭비가 된다. 때문에 현장 멤버의 지혜로 工程을 改善하고 후에 0.1명분을 절감하여 4명으로 만들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등등 - 항상 머리를 짜는 시스템이 깊숙이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수준이 높은 과제를 주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는 것은 상사가 부하의 능력을 결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上司는 자신의 역량의 범위 내에서 밖에 부하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자신 보다 그릇이 큰 부하를 꿈쩍 못하게 해 버린다. 大野씨에게서 <부하의 능력은 無限하다고 생각해!>라고 자주 들었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 했을 때에 <이제는 안 된다>라고 말한다면 절대로 實現할 수 없다. 바로 우는 소리를 내며 할 수 없는 이유를 열거하는 부하에게 왜 회사가 급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매우 슬픈 기분이 든다.

회사가 종업원에 주는 과제는 본래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은 없다. 벽에 부딪쳐도 온갖 수단 방법을 써서 挑戰해 가는 가운데 어떻게든 되는 것이다. 이것이 生産調査室 시절에 얻은 最大의 敎訓이다.

당시는 大野씨 자신도 시행착오의 연속이었다. 때때로 문제의 상황에 따라 말하는 것이 변했다. <어? 이전의 이야기와 조금 틀린 것 같습니다만...>이라고 지적하면 <君子是 잘못을 알면 바로 고치는 것이다>라고 거꾸로 야단을 맞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부하에 미움을 받는 것에 겁을 내서는 안 된다. 분명한 목표를 갖고 상사 자신이 그 실현에 본심으로 대처하고 있는 자세를 보이면 꾸지람을 당해도 부하는 당연히 납득한다.上司는 목표 달성을 향해 部下의 능력을 높여 주려고 질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는 미움을 당했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부하가 야단맞은 것을 그리워하게끔 된다고 생각한다. 대체로 部下가 <하기 쉽다>라고 기뻐게끔 하는上司는 제대로 된上司가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출처 : 日經비즈니스 2006. 6>

統計 한일교역 및 투자현황

□ 한일 교역현황

- 일본은 한국의 제3위 수출국이자 제1위 수입국이고 교역 규모면에서 한국의 제3위 교역상대국
 - 2005년도 양국간 교역량은 수출이 240억불대, 수입이 480억불대로 교역규모가 700억 불대를 돌파하여 수교후 사상 최대치 기록
 - ※ 1965년 수교당시 2억불의 교역규모에 비해 무려 340배나 신장한 수준 (엔화 기준으로는 800억엔→7조엔으로 90배 확대)
 - ※ 한국은 일본의 제3위의 수출국이며, 제6위의 수입국임
 - 대일무역적자는 2000년 100억불을 상회한 이래 계속 늘어나, 2005년에는 244억불에 이룸
- '05년도 對日 수출비중은 8.4%(중국 수출비중이 21.8%), 수입비중은 18.5%로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음
 - * 대일수출비중(%) : ('70)28.1→('80)17.4→('90)19.4→('00)11.9→('04)8.5→('05)8.4
 - * 대일수입비중(%) : ('70)40.8→('80)26.3→('90)26.6→('00)18.2→('04)20.6→('05)18.5

< 연도별 교역 현황 > (단위 : 억불, %)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수출 (증감률)	158.6 (29.6)	204.7 (29.0)	165.1 (△19.4)	151.4 (△8.3)	172.8 (14.1)	217.0 (25.6)	240.3 (10.7)
수입 (증감률)	241.4 (43.4)	318.3 (31.8)	266.3 (△16.3)	298.6 (12.1)	363.1 (21.6)	461.4 (27.1)	484.0 (4.9)
수지	-82.8	-113.6	-101.1	-147.2	-190.3	-244.4	-243.7
교역액	400.0	523.0	431.4	450.0	535.9	678.4	724.3

□ 한일 투자현황

- 일본은 미국에 이어 제2위의 투자국
 - 1962~2005년 누계기준(금액, 비중) : ① 미국 (349.4억불, 30.3%), ② 일본(174.0억 불, 15.1%), ③ 네덜란드(129.7억불, 11.2%)
- 일본의 對韓투자는 1999~2000년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0년에는 24.5억불로 사상 최고액을 기록한 이후 급격히 감소세를 보이다가 2004년에 대형투자가 집중되어 22.5억 불로 다시 급증하였음
- 2005년에도 반도체·LCD 부품제조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계속되었으나 중소기업의 투자위주로 이루어져 유치액이 18.8억불에 그침
 - * 對韓投資건수 ('04) 552건 → ('05) 611건
- 일본의 對韓투자는 부품·소재분야의 공장설립형 투자비중이 높아 한국의 산업구조고도화 및 첨단기술이전에 기여
 - * S-LCD, 호야(LCD 부품 제조), 린텍, 알박(산업용 기계제조), 닛코머티리얼(디스플레이 제조), 오키전기(반도체 IC 제조)

< 한일 연도별 투자현황 > (단위 : 억불, 신고 기준)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1962~2005
對韓 투자 (비중)	17.5 (11.3)	24.5 (16.1)	7.7 (6.8)	14.0 (15.4)	5.4 (8.4)	22.5 (17.6)	18.8 (16.2)	174.0 (15.1)
건수	391	614	591	474	495	552	611	8,886
對日 투자 (비중)	0.98 (2.0)	1.39 (2.3)	0.94 (1.9)	0.59 (2.7)	0.49 (1.4)	3.3 (4.1)	2.1 (2.3)	15.2 (1.7)
건수	37	136	114	73	62	114	137	987

기획 연재 - 삿포로(札幌) IV

그 동안 4회에 걸쳐 소개되었던 『기획연재 - 삿포로(札幌)』를 마칩니다. 많은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 삿포로 시계탑

홋카이도의 웅장한 대자연을 칭송하여 일컫는 ‘홋카이도를 상징하는 세 가지 소리’가 있다. 첫째는 시베리아에서 날아오는 겨울철새 두루미가 우는 소리이고, 둘째는 홋카이도 최북단의 왓카나이(稚内)와 홋카이도 동북부의 아바시리(網走) 앞 바다에서 나는 소리로, 아무르(Amur)강의 강물이 오호츠크해에 합류하면서 표류하는 해빙(海氷)과 부딪치는 소리가 난다.

홋카이도를 상징하는 소리 중 마지막 소리는 바로 삿포로의 상징인 삿포로 시계탑의 시계소리다.

시계탑이 있는 건물은 1878년 삿포로 농학교의 군사훈련장인 연무장(演武場)으로 세워진 러시아식 건축물로 백색과 빨강색이 어우러진 건물 색채는 당시 미국에서 유행하던 건축양식을 적용하였다. 이 시계탑은 현재 일본의 중요한 문화재 중의 하나로, 삿포로의 명물로 손꼽힌다. 삿포로 시계탑은 1881년 이후 오늘까지 변함없이 ‘메이지 시대의 소리’를 내며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 있으며, 그 시계소리가 매 시간 맑게 온 도시에 퍼지므로 홋카이도와 삿포로를 상징하는 소리가 되었다고 한다.



● 삿포로의 珍味 - 게와 유제품

요리소재가 풍성하기로 손꼽히는 삿포로는 다양하고 신선한 소재로 만드는 만큼 요리가 맛있기로 유명하다. 신선한 어패류를 사용한 생선초밥, 연어알과 성게알을 얹은 해물덮밥 등 바다의 진미를 맛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특히 게 요리는 인기가 높다. 홋카이도는 태평양, 동해, 오호츠크해, 세 개의 바다에 둘러싸여 풍부한 어획량을 자랑한다. 게의 종류도 다양한데 레드 킹 크랩이라고 알려져 있는 왕게, 블루 킹 크랩이라고 알려져 있는 기름게(게의 몸과 각질 사이에 있는 체액이 활기가 있는 상태에서는 투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삶으면 흰색을 띄게 되고 동물의 지방분과 같이 보임), 가시게(앞의 두 종류에 비해서 가시의 수가 적지만, 가시가 긴 것은 약 10mm이상), 털게가 특히 유명하다.



홋카이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음식 마지막 하나. 바로 유제품이다. 홋카이도의 웅대한 자연에서 자란 젖소에서 얻은 양질의 우유로 만든 신선한 유제품은 맛은 물론 영양가도 높아 홋카이도의 주민은 물론 관광객에 큰 인기. 그 종류도 버터, 치즈, 요구르트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진한 맛의 아이스크림이 특히 유명하다. 삿포로 아이스크림의 맛이 진하고 달콤한 우유맛이 나는 것은 공기가 건조한 홋카이도 내륙의 초원에서 나오는 싱싱한 우유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때문이다.

會員 動靜

■ 한미재계회의가 FTA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한미FTA를 적극 지지할 것을 선언했다. 제19차 한미재계회의는 **조석래(趙錫來) 회장**(효성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국 재계인사 32명과 윌리엄 로즈 시티은행장 등 미국 재계인사 32명이 참석하



가운데 6월 20~2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양국 정부간 제1차 FTA 협상이 끝난 직후에 열려 관심을 모았던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한미FTA가 양국간 교역 확대 등으로 한국이 동북아 금융허브 입지를 다지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나 법령 개선 등 비즈니스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효성그룹은 창업주 故 조흥제 전 회장의 탄생 100주년 기념식을 6월 15일 오후 6시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가졌다.

■ **김희용(金熙勇) 부회장**(동양물산기업 회장)은 3월 30일 국내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 본단지 분양을 앞둔 북한의 개성공단을 찾아 현지 투자환경을 둘러보았다. 이날 개성공단 현지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는 남측에서 모두 2백여명의 기업인들이 참석해 뜨거운 열기를 반영했으며 북측에서도 이례적으로 장관급 인사를 보내는 성의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한편 김희용 부회장은 5월 14~18일까지 전경련이 중국 동북 3성(省)의 투자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파견한 조사단의 일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 전경련은 4월 20일 이종서 교육부 차관을 초청한 가운데 교육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김윤(金鈞) 부회장**(삼양사 회장))를 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발전 방안에 관해 논의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김 부회장을 비롯한 교육발전특위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화된 인재가 필요하다”면서 영어 조기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 신한은행이 조흥은행과 통합, 자산규모로 국내 랭킹 2위 은행으로 새출발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4월 1일 대한상에서 통합 출범식을 가졌다. **라응찬(羅應燦) 부회장**(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치사를 통해 “통합 신한은행은 모두가 힘을 합쳐 일궈낸 우리들의 자산”이라며 “유연한 사고와 미래지향적 사고아래서 조흥과 신한이 결합된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은행, 이것이 바로 통합 신한은행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다.



■ “세계 4강을 이룬 김인식 감독은 ‘믿음의 리더십’이 통한다는 걸 우리에게 입증했다. 이제는 우리가 보여 줄 때다.” **김승연(金昇淵) 부회장**(한화그룹 회장)은 지난 3월 27일 저녁 서울프라자호텔에서 ‘WBC 4강 기념 김인식 감독 및 선수단 환영회’ 행사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한화전 계열사 사장을 비롯해 서울지역 계열사 상무급 이상 임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5월중순경 세계 동생산자협회(IWCC) 행사 참석차 중국 상하이에 들른 **류진(柳津) 부회장**(풍산 회장)을 비롯한 구자열 LS전선 부회장과 양귀애 대한전선 고문, 구자명 LS니코동제련 부회장 등 한국의 구리왕(王)들이 한자리에 모여 모처럼 회합을 했다. 이들은 한국에서 구리를 가장 많이 쓰는 회사 오너들이다. 4개 회사 오너가 한자리에 모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박삼구(朴三求) 부회장**(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한·중 우호협회 회장)은 5월 25일 저녁 서울 신라호텔에서 보시라이 중국 상무부 부장 일행과 한·중간 우호증진 및 경제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중국측에서 보시라이 상무부 부장을 비롯한 닝푸쿠이 주한 중국대사 등 10여명이 참석했고 한국측에서는 박삼구 전 국회의원, 한승주 전 외교부 장관, 문규영 한중경영인협회 회장, 김반석 LG화학 대표이사, 김신배 SK텔레콤 사장 등 20여명이 자리를 함께했다.



한편 금호아시아나그룹은 6월 14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정운찬 서울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호예술기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 50억원은 서울대의 예술문화 발전을 위해 음대와 미대 지원에 절반씩 사용된다.

■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상의 회장)은 6월 19일 신임인사차 대한상의를 방문한 알렉산드르 구루야노프 주한벨라루스 대사와 환담을 나누었다.



■ 3월 15일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제33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이 현재현 동양시멘트(주) 회장과 함께 영예의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서민석 부회장은 생산혁신, 품질혁신 활동을 통해 장항공장의 생산성을 업계 1위로 유지하고 이집트에 정방기 5만 3000추 규모의 현지법인을 설립, 중동·EU 등 신시장 개척의 교두보를 확보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 **이운형(李運珩) 부회장**(세아제강 회장), **서민석(徐敏錫) 부회장**(동일방직 회장)은 6월 13일 개최된 한국메세나협의회(문화를 통한 사회공헌단체) 정기총회에서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 한국무역협회는 5월 3일 부회장 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무역정보통신 사장이자 중소기업청 청장을 역임한 유창무씨를 상근부회장에 선임했다. 전형위원회는 "유창무씨가 신임 부회장으로서 필요하 리더십, 조직관리 경험, 국제적인 감각, 중소기업 지원경험 등 선임 기준을 고루 갖추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유창무 신임 부회장이 이석영 전부회장의 뒤를 이어 **한일산업무역회의 한국측 চে어맨**을 맡게 되었다.



■ 5월 30일 오후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12년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창립총회에 **이수영(李秀永) 고문**(경총회장), 유치위원장으로 선임된 **김재철(金在哲) 전고문**(동원그룹 회장), **손경식(孫京植) 고문**(대한상의 회장)이 참석하였다.



■ **신동빈(辛東彬)**

부회장 (롯데그룹 부회장은 6월 1일 자일리톨을 수입하는 등 한국과 핀란드 간 경제협력과 우호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핀란드 국민훈장인 ‘백장미장’을 받았다. 이날 서울 성북동 주한 핀란드 대사관저에서 김 루토넨 대사에게서 타르야 할로넨 핀란드 대통령이 서명한 증서와 훈장을 받았다.



■ 올해로 개교 20주년을 맞는 포항공과대학교(POSTECH)가 2020년 세계 20위권 연구중심대학 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포스텍 VISION 2020’을 선포하는 행사를 4월 10일 이 대학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유상부(劉常夫) 부회장**(포스코 고문, 포항공과대학 이사장)은 축사에서 “세계 각국이 교육경쟁력 강화를 국가적 목표로 정하고 과감한 개혁을 단행하는 현실을 직시해 줄 것”을 강조했다.



■ **조양호(趙亮鎬) 부회장**(대한항공 회장)이 6월 8일 우크라이나 키예프의 우크라이나 국립항공대학에서 항공경영학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30여년을 항공업계에 종사하면서 세계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한편 조양호 부회장은 6월 5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연례총회에서 집행위원회 위원에 재선임되었다.



■ **이구택 포스코 회장**이 5월 29일 호주 캔버라에서 마이클 제프리 총독으로부터 호주 최고훈장(AC)을 받았다.



■ 금번에 아래 기업이 우리협회 회원으로 신규 가입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주)한국보팩터미날**

<http://www.vopakorea.com>

대표자 : 이정인 대표이사

Tel.02-799-3801 Fax.02-799-3737

■ **(주)포스에이씨 종합감리건축사사무소**

<http://www.posac.co.kr>

대표자 : 김성환 사장

Tel.02-3457-3700 Fax.02-3457-3842

■ **(주)파워넷**

<http://www.gopowernet.com>

대표자 : 김상도 사장

Tel.02-3282-0700 Fax.02-3282-0800

■ **아주산업(주)**

<http://www.aju.co.kr>

대표자 : 문규영 회장

Tel.02-3474-8281 Fax.02-3475-9525

■ **인산죽염촌(주)**

<http://insan.co.kr>

대표자 : 김윤수 회장

Tel.055-964-1191 Fax.055-964-0399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http://www.kjc.or.kr>

대표자 : 조석래 이사장

Tel.02-3014-9898 Fax.02-3014-9800

<사무국 직통전화·이메일>

허남정 전무이사 njhuh@kjc.or.kr

유봉우 이사 02-3014-9833
bwryu@kjc.or.kr

조덕묘 부장 02-3014-9855
dmcho@kjc.or.kr

김정호 차장 02-3014-9866
jhkim@kjc.or.kr

심규진 과장 02-3014-9877
kjhim@kjc.or.kr

홍소영 직원 02-3014-9888
syhong@kjc.or.kr